

가고시마현청 다언어 정보지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VOL.167

1 최신정보

「제 1 회 당신이 선정한 가고시마 경관 대상」 표창식 개최 (3 월 17 일)

2 가고시마 국제교류 A - Z

가고시마에서 세계를 말하자! 제 27 회 외국인에 의한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1 월 29 일)

3 국제교류원 칼럼

야쿠시마 · 정반대의 섬: 거목과 이끼, 산과 바다, 천 년의 야쿠스기와 아기 거북②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원 이민 (싱가포르 출신)

● 「제 1 회 당신이 선정한 가고시마 경관 대상」 표창식 개최 (3 월 17 일) ●

제 1 회 당신이 선정한 가고시마 경관 대상의 표창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상은 현내 양호한 경관 형성에 공적이 있는 분들을 표창하는 것으로 총 32 건의 응모 중에 선정된 것을 현민 투표와 심사회를 실시하여 대상 1 건, 우수상 2 건을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운자미(海謝美, うんじゃみ)」는 요론 섬(与論島) 전역의 해안 경관 보전 활동에 지역을 결부시켜 매진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후쿠나가(福永)건설 주식회사는 히키야마가와(日木山川) 강 주변에 유채꽃을 심어 재배하고 있으며, 오스미요코가와(大隅横川) 역 보존 활용 실행 위원회는 가고시마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역사인 오스미요코가와 역을 보존 · 계승하고 있습니다.



운자미(海謝美)의 활동 모습

가고시마 국제교류 A - Z - The A-Z of Kagoshima's International Relations

●가고시마에서 세계를 말하자! 제 27 회 외국인에 의한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1 월 29 일)●

1 월 29 일,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가 「가고시마에서 세계를 말하자! 제 27 회 외국인에 의한 일본어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당 콘테스트는 가고시마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일본어로 의견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한 상호 이해 및 국제 교류를 증진하여 다문화 공생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10개국 22명이 응모하였으며, 그 중 예선을 통과한 6개국 9명이 본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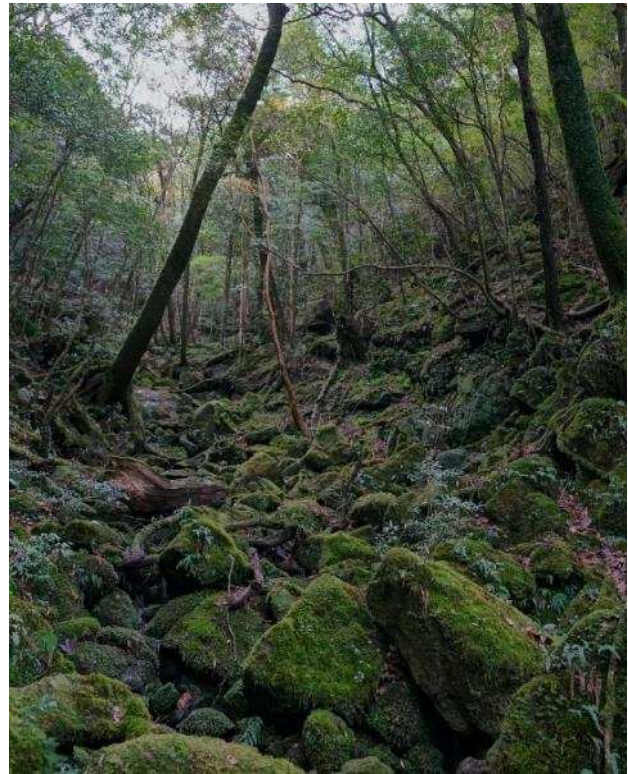
최우수상은 「분단의 세계에 살다」라는 제목으로 차별에 의한 분단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발표한 미국 출신의 ALT(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어학 지도에 종사하는 외국어 지도 조수) 버제스 키건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사회 문제에 대해 일본어로 말하여 청중의 마음에 와닿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야쿠시마 · 정반대의 섬: 거목과 이끼, 산과 바다, 천 년의 야쿠스기와 아기 거북②●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원 이민 (싱가포르 출신)

11 월 25 일 2 일차

시라타니운스이코(白谷雲水峽) 협곡



시라타니운스이코 협곡은 천 년의 야쿠스기*를 비롯해 나무와 바위 등이 이끼로 뒤덮인 짙은 녹색의 원생림의 경치가 환상적인 곳입니다.

*야쿠스기: 屋久杉, 야쿠시마의 산지에서 자생하는 삼나무

저희는 여러 하이킹 코스 중에서 다이코이와(太鼓岩)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웅대한 삼나무, 불가사의한 특징을 지닌 나무, 미끄러지기 쉬운 나무 뿌리, 이끼로 뒤덮인 바위를 지나 징검돌을 밟고 시냇물을 건넜습니다.



에도 시대에 야쿠스기를
벌채한 사람들도 사용한
구스가와(楠川) 보도

그루터기 위에 새롭게 다시
삼나무가 돌아난
니다이시기(二代杉)

그렇게 한동안을 걷다 보니 지브리 영화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의 배경이 된 「고케무스모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 속의 한 장면 같은 경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무와 바위가 짙은 녹색의 이끼로 뒤덮여 언제라도 나무의 정령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곳은 바로 거대한 삼나무와 작은 이끼의 환상적인 세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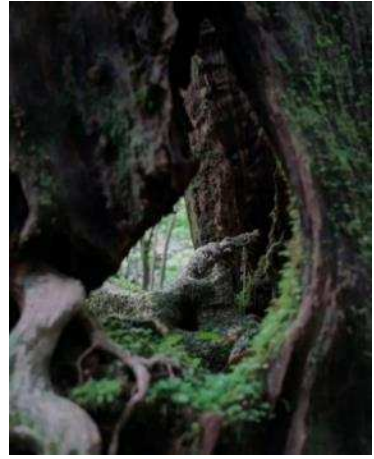
고케무스모리(통칭 모노노케 히메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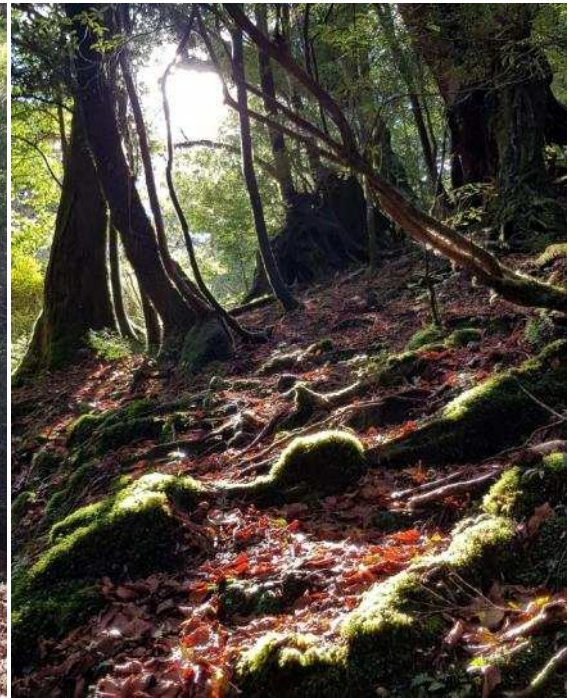
야쿠시마 세계유산 20 주년을 기념하여 초등학생이
귀여운 상상력으로 이름을 지어 붙인 삼나무



푸르름 가득한 숲속에서 먹은
맛있는 주먹밥과 닭튀김 도시락



아름다운 이끼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

열심히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다이코이와에 도착했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정상에 오르자 광활한 자연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다이코이와에서 바라본 풍경

다이코이와에서는 야쿠시마의 오후다케(奥岳)를 포함해 장대한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좋았던 덕에 규슈 최고봉인 미야노우라다케(宮之浦岳)와 안보 강(安房川, 안보가와)의 절경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위의 어떤 부분을 두드리면 북(太鼓)과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여 다이코이와(太鼓岩)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소리가 나는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머물고 싶을 정도의 훌륭한 경치였지만, 슬슬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험준한 하이킹 코스였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절대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페이스에 맞춰 준 두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상에 오른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나*



부드러운 맛의 물



나가타이나카하마(永田いなか浜) 해변

하산 후에는 야쿠시마의 유명한 폭포를 보러 갈 예정이었지만, 하이킹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탓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도착한 곳에는 나가타이나카하마 해변이 있었습니다. 해변의 평온한 아름다움에 바로 기분 전환이 되었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하늘



이곳은 일본 최대의 바다거북 산란지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해변입니다. 산란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로, 이번 방문에서는 아름다운 석양과 평온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장대한 산들과 천 년의 야쿠스기만이 아닌 아름다운 해안과 바다거북의 산란도 야쿠시마의 소중한 매력입니다.



저녁놀의 해변



이리(?)처럼 보이는 구름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다나카 주간께서 추천하는 선술집에서 했습니다. 가게 분위기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특히 생선회로 나온 날치가 제 입에 잘 맞았습니다.



모듬 회(검붉은 색은 날치)



크래프트 콜라에
강황을 넣은 독특한
풍미의 「야쿠시마
1000년 콜라」

야쿠시마의 밤하늘

빛 공해가 심각한 싱가포르 출신인 저에게 있어서 야쿠시마의 밤하늘은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다나카 주간도 가족과 함께 자주
방문하는 별 스폿에서 바라본 밤하늘

11 월 26 일 3 일차

선인의 젓가락 만들기 체험 | 스기노야 「센닌무라(仙人村)」

3 일차 아침, 젓가락 만들기 체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체험은 천 년의 야쿠스기를 직접 깎아서 젓가락을 만드는 체험입니다. 평소 수공예에 관심이 많던 저로서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스기노야」에서의 「선인의 젓가락 만들기 체험」



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아름다운 야쿠스기 목재

마음에 드는 야쿠스기 목재를 고른 후, 에도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도구와 방법으로 젓가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지역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역사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정으로 깎은 후 새(벗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를 묶어 놓은 우즈쿠리로 윤을 낸다



따뜻한 공기와 삼나무의 향기를 지닌
목조 시설에서의 젓가락 만들기 체험



젓가락 만들기 완성!

여정을 마치며



오랜 세월 야쿠시마와
다네가시마의 사람들을
지켜 온 야쿠 신사(益救神社)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흘러 어느새 여행의 끝을 맞이하였습니다. 야쿠시마는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한 섬이지만, 여행하는 동안에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야쿠시마하면 시라타니운스이쿄 협곡과 고케무스모리만 떠올랐습니다만, 이것은 야쿠시마의 수많은 매력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이끼들 사이로 거대한 나무가 있고, 낮은 해안 너머로 높은 산이 있으며, 바다거북의 탄생을 지켜보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삼나무가 있는 정반대의 야쿠시마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야쿠시마의 풍경과 음식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 준 야쿠시마 사무소의 다나카 주간과 요네하라 주사, 운전기사님 그리고 동행한 국제교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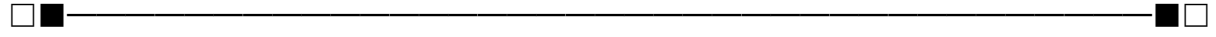
덕분에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배에서 바라본 야쿠시마의 마지막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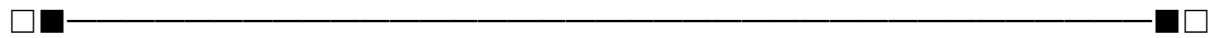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이번 달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은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저희 가고시마현청 메일 매거진은 가고시마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정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자 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야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